

-는 통에

~하는 통에 (소란스러운 상황 때문에)

시끄럽거나 어수선하거나 방해가 되는 원인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음을 나타냅니다. -는 바람에와 비슷하지만 어수선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동작 동사	-는 통에	떠들다 → 떠드는 통에
ㄹ 받침	ㄹ 탈락	울다 → 우는 통에
항상 -는	과거의 일에도	떠든 통에 (×)
원인	시끄럽거나 어수선했음	인파, 소동, 법석
결과	달갑지 않음	손해를 봄
갑작스러운 일 전 반	-는 바람에	비가 오는 바람에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문장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-는 통에입니다. ㄹ 받침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. 떠들다는 떠드는 통에.

가 됩니다. 이 표현은 동작 동사와 쓰며, 원인은 전형적으로 어수선했은 것입니다. 소음, 인파, 소동, 법석 등입니다. 조용한 원인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.

바람에와 마찬가지로 결과는 늘 달갑지 않습니다. 둘 중 바람에는 갑작스러운 일이면 무엇이든 쓸 수 있고, 통에는 특히 어수선했음과 소란을 떠올리게 합니다.

구어적이며 약간 불평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격식 있는 글에서는 -(으)로 인해나 탓에를 씁니다.

■ 예문

- 1 옆에서 떠드는 통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.
- 2 아이가 우는 통에 통화를 제대로 못 했어요.
- 3 사람들이 몰리는 통에 가방을 잃어버렸다.
- 4 공사하는 통에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.
- 5 다들 한꺼번에 말하는 통에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.
- 6 급하게 준비하는 통에 여권을 놓고 왔어요.

■ 비교

-는 바람에

둘 다 갑작스러운 원인과 나쁜 결과를 나타냅니다. 바람에는 어떤 일에 든 쓰고, 통에는 특히 소음과 어수선했음을 암시합니다.

비가 오는 바람에 취소했어요. (비) / 떠드는 통에 못 들었어요. (소란)

-느라고

-느라고는 자신이 무언가를 하느라 바빴음을 뜻하고, -는 통에는 주변의 어수선했음을 뜻합니다.

일하느라고 못 갔어요. (일을 하고 있었다) / 시끄러운 통에 못 잤어요. (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잤다)

-(으)ㄴ/는 탓에

탓에는 격식 있게 잘못을 돌리고, 통에는 구어적이며 장면을 그려 보입니다. 보고서에는 앞의 것을, 불평에는 뒤의 것을 씁니다.

준비 부족한 탓에 실패했다. (문어) / 떠드는 통에 못 했어요. (구어)

■ 주의

- ✗ 어제 옆에서 떠든 통에 집중을 못 했어요.
- 어제 옆에서 떠드는 통에 집중을 못 했어요.
- 형태는 시제와 상관없이 -는으로 고정됩니다. 과거는 마지막 동사에 붙입니다.
- ✗ 아이가 울는 통에 통화를 못 했어요.
- 아이가 우는 통에 통화를 못 했어요.
- ㄹ 받침 어간은 관형형 체계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조용히 공부하는 통에 시험을 잘 봤어요.
- 조용히 공부한 덕분에 시험을 잘 봤어요.
- 통에는 방해가 되는 원인과 나쁜 결과가 필요합니다. 조용한 원인과 좋은 결과에는 덕분에를 쓰세요.